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메타포(metaphor) 분석\*

서 보 순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BK사업팀 연수연구원

박 재 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 량 은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석사과정생

---

### 《 요 약 》

---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개 대도시, 2개 도의 평생교육원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학교 교사 13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이들이 제시한 메타포와 메타포의 근거를 반복적으로 읽고 범주화한 결과 93가지의 메타포와 5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메타포의 주제는 '필수 불가결', '더 나은 삶', '지속의 필요', '삶의 원동력', '요원히 먼 실현'이었으며, 주제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식은 직종과 장애인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을 검출해내었으며, 이를 기초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지원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 메타포 분석

---

\* 이 연구는 2014년 특수교육·보조공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pjk006@hanmail.net)

## 1. 서론

살아가는 자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누리하고자 하며, 또 그러할 권리가 있다. 배움은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도구이자,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과정과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며, 학교교육을 중심축으로 하던 이전의 교육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평생교육은 교육의 개념을 시간적으로 연장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연장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사람의 한평생이 교육기간이 되고, 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정인숙 외, 2013).

장애인 역시 배움이 필요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이다. 장애인들에게는 통합된 지역사회와 다양한 환경의 요구에 적합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활발히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한 태도와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요구된다(박승희, 2004). 이것은 장애인이 생활의 정상적인 조건, 즉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 이외에 장애 특성에 따라 개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내용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성숙, 2005).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방안으로 2008년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2013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부, 2013).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상은 그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박은혜 등(2007)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였지만, 보건복지부(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평생교육의 영역별 참여 경험 비율은 학력보완교육 0.2%,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0.2%, 직업능력 향상교육 1.4%, 인문 교양교육 0.8%, 문화예술교육 2.1%, 시민참여교육 0.3%로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평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교육은 학령기의 특수교육에 국한시켜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다(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김용욱, 우정환, 박종화, 2011; 박은혜 외, 2007). 이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4조) 등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의 법적 당위성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자기개발과 자기성장을 이루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반 마련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역할은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수행하여야 마땅하다. 최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물질 자원만 가지고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지원과정에 개입되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박재국 외, 2013; 정인숙 외, 2013).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조사한 송소현 등(2011)은 장애인들이 학교,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 학교·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 등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한편 곽승철, 이유리와 임경원(2010)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일반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하였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원, 사회복지 전담 인력, 평생교육 전담 인력들에 의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자이고, 교육대상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교수자이며,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환경구성자로서 평생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그러하기에 이들이 교육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평생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평생교육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첫 걸음은 관련 교육주체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전주성 외, 2007).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하게 될 종사자들의 인식을 규명하는 일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장애인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박은혜 외, 2007; 윤명희 외, 2006), 운영 모형 개발(강순원 외, 2011; 김용욱, 우정한, 박중화, 2011; 송소현 외, 2011; 윤점룡 외, 2010), 현황 및 실태 파악(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정인숙, 2005), 개선 방안 모색(정인숙 외, 2013), 관련 연구 동향 분석(김남진, 박재국, 2006),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개발(박승희, 2004; 박현숙, 박미경, 2008; 백은희 외, 2001; 정해동, 이성봉, 2007; Wende, 2013) 등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이 수립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이 제안되었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 인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인 교사,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연구(구정아, 박승희, 2012; 변찬석, 박외곤, 2013; 조홍중, 이순자, 2003; 최경희, 2002; 최은주, 남윤석, 2012),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의 요구분석 연구(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연구(박재국 외, 2013; 정인숙 외, 2013) 등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일반인보다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조홍중, 이순자, 2003; 최경희, 2002),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구정아, 박승희, 2012; 변찬석, 박외곤, 2013).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은 지원체계의 확립,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 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으며(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과 법제 개선안이 도출되기도 하였다(박재국 외, 2013; 정인숙 외, 2013).

하지만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시도에 그쳐, 평생교육 관련 인력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보지 못하였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다수는 연구자가 제시한 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의 양적연구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었으나 연구자가 제시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관련 인력들의 의견을 상세히 분석한 질적연구에서는 소수의 연구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기관 종사자들을 아울러 그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메타포(metaphor), 즉 은유를 활용할 수 있다. 은유는 행동, 개념, 물체 등이 지닌 특성을 그것과는 다르거나 상관 없는 말로 대체하여,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뜻한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메타포 분석법은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짓도록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 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의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메타포 분석은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이지만, 범주화된 자료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에(Okur, 2013; Tan et al., 2013),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변인에 따라 비교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산출한 메타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주관적 인식을 탐구해봄으로써 종사자이 지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가치를 찾아내고, 그들의 특성에 따라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자기 인식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주는 실제적 시사점을 찾으며, 나아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는 어떻게 범주화 되는가?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의 범주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송소현 외, 2011)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기관으로 나타난 평생교육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개 광역시와 2개 도에 소재한 평생교육원 종사자 60명, 학교 교사 60명,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60명을 편의표집하였는데, 평생교육원 종사자에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강사, 관리자 및 행정직원이, 학교 교사에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사회복지사, 관리자 및 행정직원이 포함되었다. 180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81.1%인 146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분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4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13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평생교육원 종사자 37명(28.0%), 학교 교사 57명(43.2%),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38명(28.8%)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장애인 교육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80명(60.6%)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132)

구분	구분	n	%
	여	88	66.7
연령	만 30세 미만	48	36.4
	만 30세 ~ 만 35세 미만	37	28.0
	만 35세 이상	47	35.6
학력	대학교 졸업	97	73.5
	대학원 졸업	35	26.5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계속) (N=132)

구분		n	%	
직종	평생교육원 종사자	평생교육사	11	8.3
		평생교육 강사	12	9.1
		관리 및 행정직	14	10.6
		소 계	37	28.0
	학교 교사	특수교사	30	22.7
		일반교사	27	20.5
		소 계	57	43.2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27	20.5
		관리 및 행정직	11	8.3
		소 계	38	28.8
경력	2년 미만	42	31.8	
	2년 ~ 5년 미만	34	25.8	
	5년 이상	56	42.4	
장애인 교육 경험	있음	83	59.7	
	없음	56	40.3	

## 2. 연구 도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와 그 근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은 ~ (이)다.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의 자유기술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에는 메타포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연구 주제와 무관한 주제에 관한 메타포와 그 이유를 기술하는 예시를 제시하여, 응답요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본 연구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 평생교육 강사, 사회복지사 각 1명에게 연구 도구의 문장 이해도, 응답 방법 적절성, 응답의 편의성을 검토 받은 후 사용하였다.

## 3. 연구 절차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각 60명씩 편의표집 하

였다. 각 기관 종사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으며, 직접 대면, 우편, 이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이었다.

연구자들은 회수된 응답을 개방코딩 후 메타포 분석 기준을 검토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메타포의 이유에 따라 주제별로 범주화 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제별 메타포의 의미를 찾아내고,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메타포의 범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 4. 자료 분석 및 신뢰도 검토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은 주저자가 개방코딩하면서 분석대상이 되는 메타포만을 선별하였는데, 그 기준은 첫째, 은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둘째, 은유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거나 섞여있는 것을 제외하며, 셋째, 연구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의 응답을 제외하고(Okur, 2013), 넷째, 언어학적으로 은유가 성립되지 않는 표현을 제외하였다. 코딩 후 메타포의 분석요건 충족여부를 고등학교 국어교사 1명에게 다시 점검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애인 평생교육 메타포는 132개, 93중으로 여러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메타포는 ‘물’ ( $n=8$ ), ‘공기’ ( $n=4$ ), ‘등대’ ( $n=4$ ), ‘마라톤’ ( $n=4$ ), ‘숙제’ ( $n=4$ )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메타포 (N=132)

메타포(n)
물(8), 공기(4), 등대(4), 마라톤(4), 숙제(4), 밥(3), 부모(3), 소금(3), 강(2), 건전지(2), 날개(2), 돌파구(2), 비타민(2), 빛(2), 영양제(2), 가이드라인(2), 지지대(2), 친구(2), 필요약(2), 휴대폰(2), 가족(1), 거름(1), 과자(1), 구름(1), 기름(1), 김치(1), 나(1), 나침반(1), 날립 공사(1), 단비(1), 달리기(1), 대화(1), 도자기 성형(1), 돈(1), 돌탑(1), 등산(1), 디딤돌(1), 디저트(1), 릴레이 경기(1), 무지개(1), 밀거름(1), 발판(1), 뱃사공(1), 보험(1), 부모 봉양(1), 부화(1), 빛과 그림자(1), 사회(1), 사회교육(1), 샘(1), 생존 방법(1), 선거공약(1), 선풍기(1), 수원지(1), 숨(1), 숫자(1), 식사(1), 실타래(1), 안개(1), 엔진(1), 엘리베이터(1), 엘리베이터 버튼(1), 연필과 지우개(1), 열쇠(1), 영양소(1), 옷(1), 우산(1), 운동(1), 육아(1), 의무(1), 의무교육제도(1), 의(1), 이념(1), 인생(1), 자전거 페달(1), 정치(1), 지붕(1), 지원군(1), 지팡이(1), 지하철 2호선(1), 찬스(1), 창문(1), 충전기(1), 태양(1), 텔레비전(1), 특식(1), 팔레트(1), 평행선(1), 필수교육(1), 홀로서기(1), 화분(1), 활력소(1), 희망사항(1)

메타포 수집 후 이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메타포의 주제(topic), 주제에 비유되는 용어(vehicle), 주제와 용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ground)를 탐색하였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제시한 메타포의 이유 안에 공통적인 요소나 의미가 포함된 응답들을 범주화하였으며, 각 범주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주제명을 부여하였다. 또한 메타포의 범주화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주저자와 교직경력 12년의 특수교육학 박사과정 수료자가 각각 평정을 실시한 후 Miles & Huberman(1994)의 공식에 따라 ‘일치하는 평정 수 / 일치하는 평정 수 + 불일치하는 평정 수’를 산출하였다. 평정결과 8개의 메타포에서 불일치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 계수는 .94이었으며, 불일치하는 메타포는 두 평정자가 대면하여 재검토 후 합의하여 평정하였다.

한편, SPSS 21.0 for Win.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메타포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표현한 장애인 평생교육 메타포의 범주화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메타포의 이유에서 유사한 요소 및 개념이 드러난 메타포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같은 단어로 표현된 메타포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달리 나타난 것은 다른 주제로 분류하였다. 메타포의 종류, 메타포의 주제, 빈도, 백분율은 <표 3>과 같다.

<표 3> 메타포의 주제별 분포 (N=132)

메타포(수)	주제	n	%
물(7), 공기(4), 밥(3), 소금(3), 부모(2), 비타민(2), 숙제(2), 휴대폰(2), 김치(1), 단비(1), 돈(1), 부모 봉양(1), 빛과 그림자(1), 생존 방법(1), 식사(1), 엘리베이터(1), 연필과 지우개(1), 영양소(1), 옷(1), 의무(1), 의무교육제도(1), 의사(1), 이념(1), 태양(1), 필수교육(1), 화분(1)	필수 불가결	44	33.3
등대(4), 가이드라인(2), 지지대(2), 강(1), 거름(1), 과자(1), 나침반(1), 날개(1), 덩굴식물 지지대(1), 도자기 성형(1), 돌탑(1), 빛(1), 사회(1), 사회교육(1), 엘리베이터 버튼(1), 열쇠(1), 우산(1), 운동(1), 육아(1), 정치(1), 지방(1), 지원군(1), 찬스(1), 창문(1), 충전기(1), 친구(1), 팔레트(1), 홀로서기(1)	더 나은 삶	32	24.3

메타포(수)	주제	n	%
건전지(2), 돌파구(2), 기름(1), 날개(1), 디딤돌(1), 디저트(1), 밀겨름(1), 발판(1), 뱃사공(1), 엔진(1), 영양제(1), 자전거 페달(1), 지팡이(1), 친구(1), 텔레비전(1), 특식(1), 활력소(1), 힘(1)	삶의 원동력	24	18.2
마라톤(4), 가족(1), 강(1), 나무(1), 달리기(1), 등산(1), 릴레이 경기(1), 물(1), 보험(1), 부모(1), 샘(1), 수원지(1), 숙제(1), 숫자(1), 실타래(1), 영양제(1), 인생(1), 지하철 2호선(1)	지속의 필요	21	15.9
필요약(2), 구름(1), 날림 공사(1), 무지개(1), 선거 공약(1), 선풍기(1), 숙제(1), 안개(1), 평행선(1), 희망 사항(1)	요원히 먼 실현	11	8.3
93 메타포	5주제	132	100.0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산출한 메타포의 근거가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한 결과 5가지의 주제로 묶여졌다. 연구자들은 이들 주제를 ‘필수 불가결’, ‘더 나은 삶’, ‘지속의 필요’, ‘삶의 원동력’, ‘요원히 먼 실현’으로 명명하였다. 그 중 메타포의 수가 가장 많은 주제는 ‘필수 불가결’ 이었고( $n=44$ , 33.3%), ‘더 나은 삶’ ( $n=32$ , 24.3%), ‘삶의 원동력’ ( $n=24$ , 18.2%) 주제 순으로 많은 메타포가 포함되었다. 각 주제별 메타포의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 1) 필수 불가결

‘필수 불가결’ 주제에 해당하는 메타포를 제시한 연구 참여자는 44명이었는데, 이들은 ‘물’ ( $n=7$ ), ‘공기’ ( $n=4$ ), ‘밥’ ( $n=3$ ), ‘소금’ ( $n=3$ ), ‘부모’ ( $n=2$ ), ‘비타민’ ( $n=2$ ), ‘숙제’ ( $n=2$ ), ‘휴대폰’ ( $n=2$ )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필수 불가결’ 주제의 메타포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기’** : “당연하므로, 장애인이던 비장애인이던 살아가면서 평생을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형태의 배움이건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평생 배워가면서 살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 56)

**‘부모’** :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지자가 되어 주듯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간다. 장애인들 또한 배움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 33)

**‘밥’** :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먹는 것이 밥이듯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02)

**'숙제'** :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66)

**'엘리베이터'** : "고층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다닐 엄두가 나지 않듯이, 평생교육도 장애인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23)

**'휴대폰'** : "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물건이듯,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배우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배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다. 우리 손에서 없어진 순간 불안해지는 휴대폰처럼,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도 또한 그러하다. 그들에게도 필수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 14)

이와 같이 '필수 불가결' 범주로 분류된 메타포들은 평생교육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주제의 메타포를 제시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사회적 독립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평생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라 기술하였다. 이 주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을 '물', '김치', '태양', '돈' 과 같이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메타포로 표현하거나, '빛과 그림자', '연필과 지우개' 와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은유하면서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의무', '의무교육제도', '필수교육' 과 같은 단어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묘사하면서, 장애인에게 있어 평생교육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진 의무임을 제기하였다.

## 2) 더 나은 삶

32명(24.3%)의 연구 참여자는 '더 나은 삶' 주제에 포함되는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등대' ( $n=4$ ), '가이드라인' ( $n=2$ ), '지지대' ( $n=2$ ), '강' ( $n=1$ ), '거름' ( $n=1$ ), '과자' ( $n=1$ ) 등의 단어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은유하였다. '더 나은 삶' 으로 범주화된 메타포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 "장애인이 개인적 꿈을 성취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있어서 평생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꿈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야한다." (연구 참여자 35)

**'나침반'** :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해주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고 정보격차에 따른 소외감 극복 등

을 위해서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연구 참여자 2)

**'등대'** :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밝혀주는 등대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3)

**'열쇠'** :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인권,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살아가는 데에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17)

**'엘리베이터 버튼'** : "엘리베이터에서 누르는 버튼에 따라 다른 층을 갈 수 있듯이,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선택하게 되면 무궁무진한 지식과 자신감,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19)

**'충전기'** : "평생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44)

이와 같이 '더 나은 삶' 주제에 속하는 메타포의 이유에는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능력과 역량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방향 결정과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 주제의 메타포를 제시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서 평생교육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등대', '나침반', '덩굴식물 지지대', '빛' 과 같이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열쇠', '찬스' 처럼 인생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거름', '운동', '충전기' 가 그러하듯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역할이자 목적이 된다는 인식을 나타내었다.

### 3) 삶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 메타포는 연구 참여자 중 24명(18.2%)이 제시하였는데, '건전지' ( $n=2$ ), '돌파구' ( $n=2$ ), '기름' ( $n=1$ ), '날개' ( $n=1$ ), '디딤돌' ( $n=1$ ), '디저트' ( $n=1$ ) 등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이 주제로 범주화된 메타포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름'** :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을 실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막상 교육을 받고 싶어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74)

**'디딤돌'** : "디딤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으니까, 없다면 퇴보하고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을 떠올리면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교육장에서 마주치는 장애인 가운데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며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뿐 아니라 교육의 현장으로 나오고 타인을 만나는 것 자체도 삶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연구 참여자 10)

**‘디저트’** : "평생교육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매일의 일상에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인 복지관이 근처에 있는 줄 모르고 집에서 무료하게 TV만 보면서 생활하다가 본 기관에 등록하여 여러 가지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며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보면서 평생교육은 삶의 활력을 제공해주는 맛있는 디저트와 같다고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 20)

**‘배사공’** : "배를 부리는 일이 직업이니 돛단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박차를 가해 주기 때문이다. 몸의 불편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행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4)

**‘영양제’** : "생활하면서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번의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가게 된 계기가 절실히 무엇을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여가 같이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가꾸기 위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영양제를 먹는 것이 몸에는 도움을 주기 때문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69)

‘삶의 원동력’으로 범주화된 메타포에는 평생교육이 삶의 즐거움과 활력소가 된다는 인식이 녹아나 있다. 이 범주의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가동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점에서 ‘건전지’, ‘기름’, ‘엔진’, ‘자전거 페달’로, 생활의 즐거움이 된다는 점에서 ‘디저트’, ‘친구’, ‘특식’, ‘텔레비전’으로 비유하였다. 이들의 의견에서는 평생교육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삶을 살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며, 스스로를 가꾸어 가도록하는 발판이 된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들이 이 주제의 메타포를 제시한 이유에서는 ‘동력’, ‘활기’, ‘활력’, ‘원동력’, ‘박차’, ‘윤택’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면서 평생교육이 장애인들에게 부가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평생교육을 통해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할지라도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윤택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 4) 지속의 필요

21명(15.9%)의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메타포는 ‘지속의 필요’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여기에는 ‘마라톤’ (n=4), ‘가족’ (n=1), ‘강’ (n=1), ‘나무’ (n=1), ‘달리기’ (n=1), ‘등산’ (n=1) 등의 메타포가 속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메타포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등산’** : “힘들고 지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등산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다. 장애인 분들에게 평생교육은 일반인들보다 더 험난한 교육이다. 한계에 부딪힐 때도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지속적인 노력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보람을 평생교육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 50)

**‘마라톤’** :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것은 원래 오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시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단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133)

**‘릴레이 경기’** : “교육에 있어 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릴레이 경기처럼 계속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연구 참여자 52)

**‘보험’** : “장애 영역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평생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울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111)

**‘수원지’** : “평생교육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걸러서 적합한 음용수를 만들어 내는 수원지 같아야 한다. 배움이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듯 중단 없는 좋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구 참여자 78)

**‘숫자’** : “비장애인도 교육은 끝이 없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습뿐만 아니라 자조생활 등 전반적인 영역에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처럼 끝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참여자 40)

이와 같이 ‘지속의 필요’의 범주에 속하는 메타포들에서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바람이 드러난다. ‘마라톤’, ‘달리기’, ‘등산’, ‘릴레이 경기’ 처럼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하며, ‘강’, ‘물’, ‘샘’, ‘수원지’ 와 같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가족’, ‘보험’, ‘부모’ 처럼 평생 곁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 주제에서 나타났다. 학습은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평생교육은 중단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이 주제의 평생교육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시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일반인들의 평생교육보다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 5) 요원히 먼 실현

‘요원히 먼 실현’ 주제에 해당하는 메타포는 연구 참여자 중 11명(8.3%)로부터

제시되었는데, ‘필요악’ ( $n=2$ ), ‘구름’ ( $n=1$ ), ‘날림 공사’ ( $n=1$ ), ‘무지개’ ( $n=1$ ), ‘선거 공약’ ( $n=1$ ) 등으로 표현되었다. ‘요원히 먼 실현’에 포함되는 응답을 제시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메타포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구름’** : “아직은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처럼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 모양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하늘의 구름처럼 장애인들에게 희망·이상이라는 메시지를 주기만 할 뿐, 아직은 제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58)

**‘날림 공사’** : “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고민 속에서 튼튼하게 기초하지 못했고,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지지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외관만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10)

**‘무지개’** : “멀리서 볼 때에는 예쁘지만 구체적인 모양이 없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말을 들어보긴 하였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57)

**‘선거 공약’** :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되기 어렵고 잘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에 비유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내가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당선이 되었다 해도 그 공약을 얼마만큼 지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생교육이 지원되는지는 의문이다.” (연구 참여자 34)

**‘안개’** :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히 떠오르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에 대해 깨닫고 어떤 해결점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60)

**‘필요악’** : “장애인 한명 한명에게는 평생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구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생교육시스템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용적 부담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을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29)

이와 같이 ‘요원히 먼 실현’ 주제의 메타포를 산출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바람직하게 실현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은 ‘구름’, ‘무지개’, ‘안개’와 같이 멀고 구체적 실체를 알기 어려운, ‘선거 공약’, ‘희망 사항’ 처럼 실제로 구현되기 힘든, ‘필요악’, ‘날림 공사’ 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메타포를 통해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 분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에둘러 나타내었다.

## 2.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메타포 범주의 차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가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제별 응답결과를 변인에 따라 교차분석하였다. 최소 기대빈도치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 셀의 20% 이하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기에 이상적인 변인(김석우, 2010)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경력, 직종, 장애인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응답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메타포 범주의 차이 (N=132)

변인	주 제, n(%)						x <sup>2</sup> , df, p
	필수 불가결	더 나은 삶	삶의 원동력	지속의 필요	요원히 면 실현		
성별	남 (n=44)	15 (34.1)	9 (20.5)	9 (20.5)	9 (20.5)	2 (4.5)	x <sup>2</sup> =2.58, df=4, p=.630
	여 (n=88)	29 (33.0)	23 (26.1)	15 (17.0)	12 (13.6)	9 (10.2)	
연령	30세 미만 (n=48)	19 (39.6)	13 (27.1)	4 (8.3)	7 (14.6)	5 (10.4)	x <sup>2</sup> =9.97, df=8, p=.267
	30세~34세 (n=37)	14 (37.8)	7 (18.9)	8 (21.6)	4 (10.8)	4 (10.8)	
	35세 이상 (n=47)	11 (23.4)	12 (25.5)	12 (25.5)	10 (21.3)	2 (4.3)	
근무경력	2년 미만 (n=42)	17 (40.5)	13 (31.0)	3 (7.1)	5 (11.9)	4 (9.5)	x <sup>2</sup> =7.44, df=8, p=.491
	2년~5년 미만 (n=34)	11 (32.4)	7 (20.6)	8 (23.5)	5 (14.7)	3 (8.8)	
	5년 이상 (n=56)	16 (28.6)	12 (21.4)	13 (23.2)	11 (19.6)	4 (7.1)	
직종	평생교육원 종사자(n=37)	11 (29.7)	12 (32.4)	12 (32.4)	1 (2.7)	1 (2.7)	x <sup>2</sup> =23.07**, df=8, p=.003
	학교 교사 (n=57)	22 (38.6)	9 (15.8)	7 (12.3)	10 (17.5)	9 (15.8)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n=38)	11 (28.9)	11 (28.9)	5 (13.2)	10 (26.3)	1 (2.6)	
장애인 교육경험	있음 (n=82)	31 (38.8)	17 (21.3)	11 (13.8)	11 (13.8)	10 (12.5)	x <sup>2</sup> =9.56*, df=4, p=.049
	없음 (n=52)	13 (25.0)	15 (28.8)	13 (25.0)	10 (19.2)	1 (1.9)	

\*p<.05, \*\*p<.01

위 표와 같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직종과 장애인 교육 경험은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으나, 성별과 연령, 경력은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 아니었다. 직종에 따른 분석 결과 평생교육원 종사자들은 ‘더 나은 삶’ (32.4%), ‘삶의 원동력’ (32.4%), ‘필수 불가결’ (29.7%)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수 불가결’ (28.9%), ‘더 나은 삶’ (28.9%), ‘지속의 필요’ (26.3%)에 해당하는 메타포를 고루 제시하였으나, 교사들은 ‘필수 불가결’ (38.6%)의 메타포를 제시하는 경향이 두 집단보다 더 뚜렷하였다( $p < .01$ ). 한편 장애인을 교육해 본 경험이 있는 인력들의 메타포는 ‘필수 불가결’ (38.8%), ‘더 나은 삶’ (21.3%) 순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험이 없는 인력들의 메타포는 ‘더 나은 삶’ (28.8%), ‘필수 불가결’ (25.0%), ‘삶의 원동력’ (25.0%)에 고루 속했다. 즉 장애인 교육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필수 불가결’의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p < .05$ ).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나타내는 메타포를 산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분석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는 93가지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물’, ‘공기’, ‘등대’, ‘마라톤’, ‘숙제’는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산출한 단어였다. 한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밝힌 메타포의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였을 때, ‘필수 불가결’, ‘더 나은 삶’, ‘삶의 원동력’, ‘지속의 필요’, ‘요원히 먼 실현’의 5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필수 불가결’과 ‘더 나은 삶’에 속하는 응답이 다른 주제보다 더 많았다. 또한 각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메타포들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이 드러났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직종과 장애인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의 경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메타포를 활용하였다. 메타포는 대상에 관한 사고의 개념적 틀을 제공해주어 (Shuell, 1990),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가지는 인식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Korkmarz & Senol, 2014). 메타포를 활용한 인식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특정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확산적 사고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생성된 질적 자료를 양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장애인을 교육하고 있거나 장차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제시되었다. ‘물’, ‘공기’, ‘등대’, ‘마라톤’, ‘숙제’ 등을 비롯한 93가지의 메타포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대치하여 나타낸 말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단어들은 평생교육 관련 인력들의 인식을 표상하는 도구로, 그 인식을 면밀히 이해하도록 해 주며,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의 양성 및 연수 교육과정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메타포에 숨어 있는 근거에 따라 범주화하였을 때 ‘필수 불가결’ 주제에 가장 많은 메타포가 포함되었다. 이 주제에서는 ‘물’, ‘공기’, ‘밥’, ‘소금’, ‘부모’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은유되었으며,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필코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드러났다. 이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높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평생교육의 주체들의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에 매우 고무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을 선언하였고(김성길, 2004),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도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명시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당위성 또한 주장되어 왔다(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김남진, 박재국, 2006; Wende, 2013). 하지만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식의 영역과는 다르게 실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수혜율은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은혜 외, 2007; 보건복지부, 2011). 모든 이는 장애유무를 떠나 인간 자체가 지닌 평생학습권과 평생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정인숙 외, 2005).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 장애라는 특수한 조건과도 양립할 수 있도록 의료적 재활, 사회경제적 재활 그리고 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강순원, 2013).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이 실현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은 평생교육에 있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과 관련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더 나은 삶’은 두 번째로 많은 메타포들이 포함된 주제였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등대’, ‘가이드라인’, ‘지지대’, ‘나침반’, ‘거름’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표현하였는데, 이들은 평생교육이 삶의 개선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 즉, 지식

및 정보 습득, 역량 강화, 삶의 방향 안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중사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해 주는 밑거름이 되며, 평생교육 인력들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효용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거론되었는데, 정동영, 정동일과 정인숙(2003)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태도·가치관·도덕성 등을 함양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유지·관리하는데 목표를 두는 교육활동이라 하며 그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는 또한 프로그램 적용 연구들에 의해 실증적으로도 증명되었는데, 고종태, 정미경과 김혜선(2008)과 최운실(2005)은 평생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삶의 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였다. 이에 더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박승희(2004)는 지역사회 생활기술 수행 향상에, 박지혜(2011)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더 나은 삶’이 평생교육의 결과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삶의 원동력’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건전지’, ‘돌과구’, ‘날개’, ‘디저트’, ‘영양제’라는 말로 나타내면서 평생교육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로 기능한다고 여겼다.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사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형성되고, 학습자간의 연대 즉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김경숙, 2010), 평생교육 대상자들 중에는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고 고용과 소득보다 학습 자체가 갖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유형도 존재한다(백평구, 2013). 평생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은 분명하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로만 교육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이 개인적 공간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수동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적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중 일부 문항을 할애하여 조사한 자료만이 제공되고 있고,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특정 지역에 제한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국가 및 시도차원에서의 대규모 조사연구도 요구되며,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평생교육 영역,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수요와 지원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속의 필요’ 주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마라톤’, ‘강’, ‘릴레이 경기’, ‘보험’과 같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실행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평생교육은 자기개발과 자기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정란지, 주동범, 2009)이기에, 생애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도록(박재국 외, 2013), 생애단계별로 간격 없이 공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다(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또한 생애 단계별 장애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령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수교육기관과 성인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의 열악한 실태를 반영하는 주제도 도출되었다. ‘요원히 먼 실현’이 그것인데,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약’, ‘구름’, ‘날림 공사’, ‘선거 공약’, ‘안개’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당위성만 강조될 뿐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혼돈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 이용표(2009)의 연구나, 평생교육의 형식적인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을 소개한 이희정(2003), 이선영(2008)의 연구 결과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은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자구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평생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의지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실무 종사자들은 학습촉진자로서의 역량, 교수설계자로서의 역량,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요구되며(이영민, 2008),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게는 이에 덧붙여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을 위한 교수방법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양성체제 기반 마련, 현직 연수체제 보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행정적 지원, 유관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직종과 장애인 교육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이 평생교육원 종사자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필수불가결’의 메타포를 더 많이 산출하였다. 교사들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정란지와 주동범(2009), 이선영(2008), 전주성 등(2007)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이나, 이 연구들은 타 기관 종사자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지는 않았기에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 평생교육기관 행정가에 비해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학령기의 학생들을 주된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직업적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교사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학습권

이 학령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형성 되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육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필수 불가결’의 메타포를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내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생동안 교육이 필요하고, 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성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장애인 교육경험 이 있는 연구 참여자 안에는 교사가 상당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검증 결과가 독립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은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통한 추후 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관, 평생교육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다수는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직무상 장애인을 만 나는 인력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없다하더라도 장차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장애인 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은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과 장애인들의 교육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박재국 외, 2013; 정인숙 외, 2013), 이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 한 인식 연구가 부족한 실상을 고려할 때,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들을 연구 대상에 참여하도록 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적 편중성을 탈피하지 못하였 으며, 평생교육원 종사자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교사들의 응답률이 높아 이 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예비평생교육인력인 평생교육학,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전공 대 학생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메타포 연구 또한 수행될 가치가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요구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행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관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순원 (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배제에서 포용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1), 55-84.
-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 서울시교육청.
- 고종태, 정미경, 김혜선 (2008). 평생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인식 및 죽음 불안태도와 의 관계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4(2), 61-86.
- 곽지혜 (2011).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 연구**, 26(4), 207-24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브리태니커 온라인 한국어 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평생학습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서울: 교육부.
- 구정아, 박승희 (2012). 장애이미지, 장애원인 및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특수교육관련 종사자의 인식 비교. **지적장애연구**, 14(2), 101-130.
- 김경숙 (2010). 평생교육 무리수혜자의 학습에 대한 인식 탐색-A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6(1), 47-63.
- 김남진, 박재국 (2006). 특수교육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3), 215-234.
- 김석우 (201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AMOS 활용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성길 (2004). UNESCO와 OECD의 평생교육전략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평생여가교육의 가능성. **연세교육연구**, 17(1), 55-71.
- 김용욱, 우정환, 박종화 (201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1), 237-256.
- 박성숙 (2005).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희 (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 박재국, 김혜리, 민영성, 이충렬 (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박은혜, 원종례, 김주영, 최옥이 (2007).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E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4(1), 3-24.
- 박현숙, 박미경 (2008).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지체 성인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4), 213-244.
- 백은희, 곽승철, 전병운, 김종인 (2001).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169-205.

## 2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3호)

- 백평구 (2013). 정책 대상 집단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 **주관성 연구**, 26, 127-143.
- 변찬석, 박외곤 (2013).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을 지닌 학생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시각장애 연구**, 29(4), 177-200.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윤명희, 박재국, 박철민, 이은경, 임현성, 김소희 (2006). 부산지역 거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이러닝 콘텐츠 수요조사. **시각장애연구**, 22(2), 159-182.
- 윤점룡, 양종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모형 연구. **특수교육 연구**, 17(2), 3-141.
- 이선영 (2008).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이영민 (2008). 평생교육기관 실무 종사자의 교수설계 역량 및 보유 수준에 관한 인식 분석. **인력 개발연구**, 10(2), 47-64.
- 이용표 (2009).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인식과 실천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재활복지**, 13(2), 79-110.
- 이희정 (2003).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실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주성, 유은수, 한수연, 이현주, 임희연, 이희송 (2007).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현직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3), 173-197.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향 탐색. **특수교육**, 2(1), 5-35.
- 정란지, 주동범 (2009). 초등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17(3), 193-213.
- 정인숙 (2005). 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75-98.
- 정인숙, 김석진, 박재국, 박진홍, 이해영, 홍성두 (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 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해동, 이성봉 (2007). 충남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연구**, 14(1), 25-45.
- 조홍중, 이순자 (2003). 유치원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2), 133-155.
- 최경희 (20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일반인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식유형의 비교. **특수교육 연구**, 9(2), 187-208.
- 최은주, 남윤석 (2012) 지적장애학생의 장점에 대한 초등특수교사의 인식 분석. **지적장애연구**, 14(1), 171-191.
- 최운실 (2005). 성인교육자의 평생교육 참여성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24(3), 381-419.
- Korkmarz, H., & Senol, Y. (2014). Exploring first grade medical students' professional identity using metaphors: Implications for medical curricular. *Medical Education Online*, 19, 1-7.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CA: Thousand Oaks.
- Okur, M. (2013). The metaphors of the mathematics teacher candidates in elementary schools concerning the concepts of “Relation, Equivalence Relation and Ordered Re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Part B*, 5(2), 163–174.
- Shuell, T. J. (1990). Teaching and learning as problem solving. *Theory into Practice*, 29, 102–108.
- Tan, M., Barbot, B., Mourgues, C., & Grigorenko, E. L. (2013). Measuring metaphors: concreteness and similarity in metaphor comprehension and gifted identification. *Educational & Child Psychology*, 30(2), 89–100.
- Wende, J. (2013). ‘IT skills for modern day living’ – supporting adult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lifelong learning.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1(3), 210–211.

## Metaphor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o, Bosoon**

Post-Doct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k, Jaekook**

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k, Lyangeu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towards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metaphors analysis and find a way to vitaliz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was collected from 132 participants who are currently employed at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social welfare centers, and schools in two major metropolitan cities and two provinces and this was used for the final data analysis. After reviewing participants' responses repetitively, ninety three metaphors were withdrawn and those were conceptually categorized into five themes: (1) Indispensable; (2) Better life; (3) Need to continue; (4) Driving force of life; (5) Difficult to realize. Metaphor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iffered according to workers' occupational category and teaching experienc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found a variety of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a basis of the results, ways how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rain professionals, and develop support systems were discussed.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Awareness towards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etaphor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Metaphor Analysis

---

논문 접수: 2014. 08. 05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17